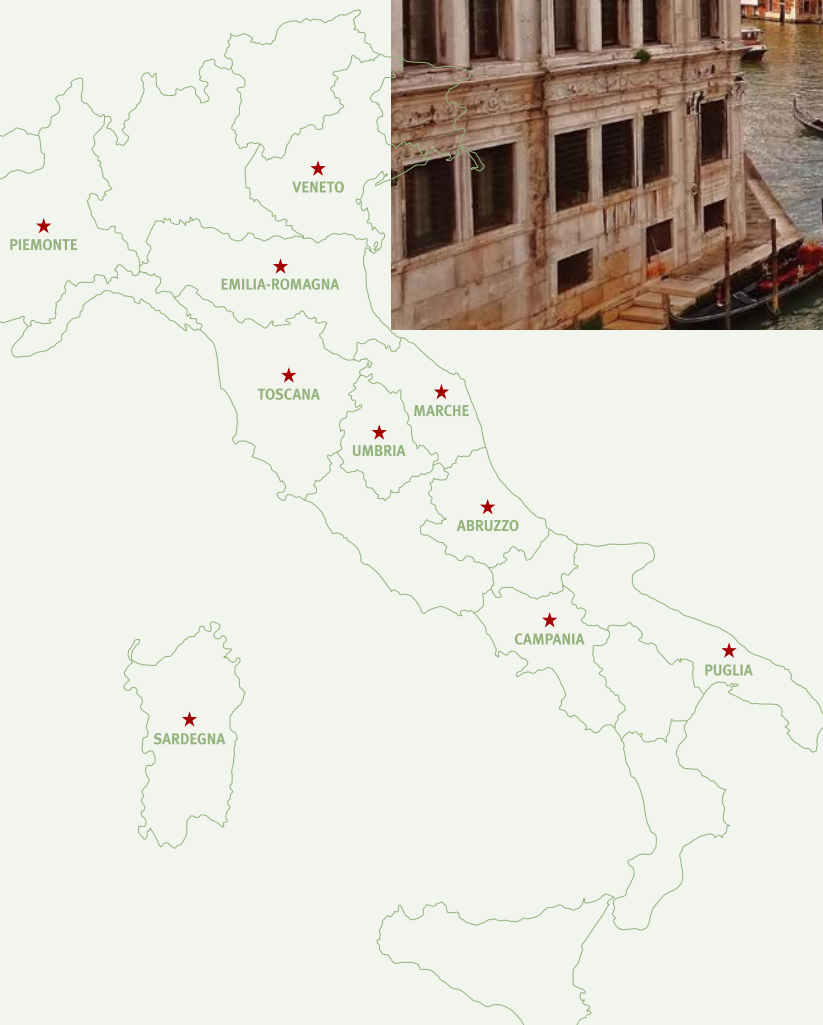


KWC 2020 ITALIAN WINES



지난해에 이어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20에서도 이탈리아가
출품 와인 수 1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와인은 지역별 다양한 토착
품종들로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한 와인을 생산해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KWC 2020에 빼에몬떼,
베네토, 토스카나, 마르께, 움브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아브루쑤, 뽀리아,
깜빠니아,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전역의 와인들이 다양하게 출품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화이트 트로피를 수상한 것도
이탈리아 와인이었다. 마지막에 아르헨티나 와인에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베스트 이탈리아 레드 수상 와인도 강력한 레드 트로피 후보였다.

KWC 2020에서 수상한 이탈리아 와인들을 지역별로 만나보자.

글 강은영, 조은지 사진 Pixabay



PIEMONTE 빼에몬떼

이탈리아 반도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는 산지다. 북으로는 알프스 산이 서남쪽에는 아펜니노 산맥이 발달해 있으나 대체로 완만한 구릉과 언덕으로 덮여 있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와인들이 나는 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탈리아 와인의 최상급 품계인 DOCG와 그 아래 품계인 DOC도 여느 지방보다 많다. 빼에몬떼에서 질 좋은 와인이 나는 언덕이 두 곳이 있다. 랑게(Langhe)와 몽페라토(Monferrato)이다. 이 지역에는 포 강이 관류하고 있고 타나로 강이 있어 최상의 포도가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바로 이 강이 지나는 유역에 와인애호가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아스티 등이 있다. 빼에몬떼의 포도 재배면적은 48,100ha이며 연 와인생산량은 2016년 기준 2,580,000hl이다. 재배되는 레드 품종에는 네비올로, 바르베라, 보나르다, 브라께토, 돌체토, 프레이사, 그라놀리노 등이 있으며 화이트 중에는 아르네이스, 꼬르테제, 아르베루체, 모스카토, 나체마, 로쎬제 등이 있다.

▶ Fratelli Martini Secondo Luigi SPA 프라텔리 마르티니 세콘도 루이지 SPA

1947년 설립된 프라텔리 마르티니 세콘도 루이지는 연 매출 1억 6천 유로에 달하는 규모를 갖고 있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이탈리아 안에서는 제법 큰 규모로 손꼽힌다. 시간 당 2만 2천병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내는 병입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현 오너 잔니 마르티니(Gianni Martini)는 활기차고 멋스러우며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브랜드 깐띠를 탄생시켰고, 그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NTI Brachetto DOC Piemonte
Silver CANTI Prosecco DOC Millesimato Luxury
Silver CANTI Moscato d'Asti
Bronze Lo Zoccolajo Barbera d'Alba Sucule

▶ Adriano Grasso 아드리아노 그라쑤

아드리아노 그라쑤는 빼에몬떼 몽페라토 지역 초입에 있는 칼로쑤(Calosso)에 위치해 있다.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아드리아노 그라쑤는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모든 포도를 재배한다. 그는 포도밭에서 채취한 자연 효모를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고, 발효 시 생성된 포도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 24개월 숙성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제조제를 사용하는 대신 잡초가 자란 땅을 두껍게 떠서 뒤집어 그대로 자연 비료가 되도록 한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Adriano Grasso Barbera d'Asti

▶ Braida 브라이다

1961년 설립된 브라이다는 빼에몬떼의 작은 마을 로게타 타나로(Rocchetta Tanaro)에 위치해 있다. 설립자 주세페 불로냐(Giuseppe Bologna)의 아들 자코모(Giacomo)는 바르베라 와인의 혁명을 이끈 인물로, 바르베라가 지닌 잠재력을 세상에 알렸다. 바르베라에 가장 좋은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남향에서 포도를 재배했고, 프랑스 오크통 숙성을 도입했다. 현재 자코모의 딸과 아들인 라파엘라(Raffaella)와 베페(Beppe)가 3대째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다. 수입사 무학주류상사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raida Il Baciato Monferrato Rosso

▶ Tosti 토스티

베에몬테 주 아스티에서도 유네스코 문화 유산지에 지정된 까넬리 지역에 자리를 잡은 와이너리다. 1820년 보스카(Bosca) 일가가 설립한 이래 7대째 이어오는 유서 깊은 와인생산자이기도 하다. 190만평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500여개의 농가와 함께 포도를 재배하고 관리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1,500만 병에 이르며, 미국 내 모스카토 스파클링 와인 판매 1위 생산자로 연간 720만병을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레방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osti Moscato d'Asti Heart
Silver Tosti Torlasco Moscato d'Asti

▶ Gancia 간치아

프랑스 랭스(Reims)에서 유학을 마치고 베에몬테로 돌아온 까를로 간치아(Carlo Gancia)는 1850년 간치아를 설립한다. 1865년에는 모스카토를 이용한 이탈리아의 첫 스파클링 와인을 탄생시켰다. 이후 1870년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가 간치아를 공식 와인 공급처로 지정하며 유럽의 로열패밀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간치아는 스파클링 와인과 아페리티프 와인의 세계적인 거장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Gancia Moscato d'Asti
Silver Gancia Moscato Rose

▶ Fratelli Ponte 프라텔리 폰테

프라텔리 폰테의 역사는 세계대전 직후 카를로 폰테(Carlo Ponte)가 알바 근교의 산 다미아노(San Damiano)에 바르베라 포도밭을 사들이며 시작된다. 삼형제 마씨모(Massimo), 이반(Ivan), 레나토(Lenato)가 와이너리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ha의 포도밭에서 네비올로, 바르베라, 아르네이스 등을 재배한다. 한편 프라텔리 폰테는 이탈리아 최고의 그라빠 장인인 로마노 레비(Romano Levi)가 디자인한 개성 넘치는 레이블로도 유명세를 얻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Fratelli Ponte Arneis

VENETO 베네토

이탈리아 반도의 동북부에 자리한 지역이다. 위도는 북위 45~46°상.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인 베로나가 주도다. 지형은 산악지대와 평야가 공존한다. 서쪽은 거대한 가르다 호가 롬바르디아 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돌로미티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서남부 지역은 포 강이 롬바르디아를 거쳐 베네토 지방을 관류하고 있어 드넓은 평원이 만들어진 다. 북부는 알프스 산맥으로 인해 차가운 기후를 보이지만 동남쪽은 포강 유역과 평원 아드리아 해로 인해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전체 생산량은 화이트가 55%, 레드가 45%를 차지한다. 이 지방의 와인은 크게 4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가르다 호수 동쪽에 위치한 발폴리첼라. 레드 와인이 주를 이루며 레치오토포와 아마로네 등이 유명하다. 두 번째는 베로나 인근에 자리한 소아베로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세 번째가 베로나의 동북쪽 트레비조 인근에 자리한 발둬비아테네와 꼬넬리아노로, 인기 있는 스파클링 와인인 프로세코가 난다. 마지막은 가르다 호수 동남쪽의 바르돌리노 지대로 론디넬라 포도종으로 마시기 좋은 레드 와인을 만든다.



▶ Tedeschi 테데스키

1630년부터 4세기 동안 와인 비즈니스에 몸담아 온 테데스키 가문의 와이너리다. 이들은 발폴리첼라 지역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우아하고 풍성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와인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테데스키의 스타일은 60년 대 초 로렌조 테데스키(Lorenzo Tedeschi)가 몬테 올미(Monte Olmi) 포도밭에서 난 포도로 싱글 빈야드 와인을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몬테 올미는 발폴리첼라 지역의 첫 싱글 빈야드 와인이자 테데스키의 플래그십 와인이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 와인리스트
Gold La Fabriseria Valpolicella DOC Classico Superiore
Silver Marne 180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 Ferro 13 페로 13

페로 13은 5명의 와인 전문가들이 베로나의 페로 13거리에서 저녁을 먹으며 와이너리 설립을 결정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모든 와인은 독립적으로 계약된 포도밭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포도로 생산된다. 모던한 레이블을 담은 와인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킨 이탈리아의 젊은 와이너리로, <Wine Spectator>에서 페로 13 브랜드 삽화가 단독으로 게재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Ferro 13 Hacker

▶ Masi 마시

1772년 보스카이니(Boscaini) 가문이 설립한 마시는 발폴리첼라의 심장부인 가르가냐고 디 발폴리첼라에 위치해 있다. 총 993ha의 포도밭을 소유하며, 자체 양조기술 그룹을 만들어 아파시멘토의 방식을 연구, 이름난 아마로네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9개 이탈리아 최고 와인 명가들의 집합인 '그란디 마르끼(Grandi Marchi)'에 속해 있는 마시는 세계적으로도 아마로네 명가로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레방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Masi Costasera Amarone

▶ Rubinelli Vajol 루비넬리 바이올

루비넬리 가문은 발폴리첼라의 심장부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이후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가에타노 루비넬리(Gaetano Rubinelli)는 루비넬리 바이올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대를 이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약 10ha의 포도밭을 소유하며 이곳에서 꼬르비나, 론디넬라 등을 재배한다. 또한 주변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유기농 재배를 철학으로 제조제나 합성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Rubinelli Vajol Amarone Della Valpolicella Classico

▶ Vivaldi 비발디

혁신을 담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 와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4년 발폴리첼라 지역에 설립된 와이너리다. 이들은 아마로네와 레치오토포 와인 생산을 위해 특히 포도를 건조하는 기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발폴리첼라 지역의 와인에 국한하지 않고 소아베를 비롯해 베로나 지역의 와인과 베네치아의 피노 그리지오 등 베네토 전 지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ivaldi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Classico Premium
Gold Vivaldi Appassimento IGT
Silver Vivaldi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EMILIA ROMAGNA 에밀리아 로마냐

위로는 베네토 아래는 토스카나가 있어 와인산지로 에밀리아 로마냐는 그간 덜 부각된 면이 있다. 하지만 이 지방은 역사, 음식, 문화가 풍부하게 발달한 곳이며, 이탈리아에서 베네토 다음으로 와인 생산량이 높은 곳이다. 이 지역에서 와인산업은 오랫동안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 생산자들이 직접 와인을 병입하기 시작하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이 지방의 와인 퀄리티가 부쩍 높아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에밀리아 로마냐는 볼로냐를 경계로 동쪽의 에밀리아와 서쪽의 로마냐가 합쳐진 지방이다. 에밀리아에서는 기포가 잔잔한 레드 스파클링 와인 람브루스코가 발달한 반면 로마냐 지역의 터주대감은 산지오베체다. 또 로마냐 지방에서는 알바나(Albana)라는 화이트 품종으로 질 좋은 와인을 빚는다. 길게 늘어지는 포도송이가 특징인 이 품종은 높은 산도와 크림리한 질감이 매력적인 와인으로 빛어진다. 알바나 디 로마냐(Albana di Romagna)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DOCG를 얻은 화이트 와인이다.

▶ Caviro 카비로

1966년에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12,500명의 포도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포도는 연간 730,000톤에 이른다. 카비로의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밭도 36,500ha에 이른다. 와이너리 본사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의 파엔자(Faenza) 지역에 있다. 한편 타베르넬로(Tavernello)는 카비로가 생산하는 와인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탈리아 브랜드 중 하나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Tavernello Vino Rosso d'Italy



TOSCANA 토스카나

이탈리아의 허리 부분인 중서부에 자리한 지방이다. 서쪽의 아펜니노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산세가 강한 편이다. 지방의 한 가운데는 아르노 강이 피렌체와 피사를 거쳐 리구리아 바다로 유입된다. 강 유역에는 완만한 구릉이 펼쳐지는데, 이 지방의 2/3가 언덕으로 덮여 있다. 토스카나의 주도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상지다. 그러한 만큼 역사, 문화, 예술의 본고장이다. 토스카나는 와인의 명산지로도 유명하다.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와인이 나고 있는데 레드 와인이 지배적이다. 이름난 와인에는 끼안띠, 끼안띠 클라씨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까르미냐노 등의 레드 와인을 비롯해 산 지미냐노의 화이트 와인이 유명하다. 한편 1960년대에는 불게리 일대에서 DOC 체계를 벗어나 프랑스 보르도 품종으로 빚은 레드 와인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명 '슈퍼투스칸'이 불리는 와인들이다.

Ruffino 루피노

1877년 사촌 간인 일라리오 루피노와 레오폴드 루피노가 피렌체의 폰타씨에베(Fontassieve)에 설립했다. 이들이 생산한 루피노 끼안띠는 1881년 밀란 와인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일찍이 명성을 얻었고, 1890년 와이너리를 방문한 아오스타 공작이 루피노를 왕실 공식 공급업체로 지정하기도 했다. 루피노는 미국 시장에 최초로 수출된 끼안띠 와인이기도 하며 1970년대에는 슈퍼투스칸 와인인 모두스를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입사 나라셀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Ruffino Il Ducale Toscana IGT
Silver Ruffino Riserva Ducale Chianti Classico DOCG

Tolaini 톨라이니

피에르 루이지 톨라이니(Pier Luigi Tolaini)는 생계를 위해 스무 살에 캐나다로 떠났다. 40년 후 북미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의 오너가 된 그는 고향 토스카나로 돌아와 와인메이커의 꿈을 이루게 된다. 그는 수 년 간 토스카나 곳곳을 연구한 끝에 1998년 끼안띠 클라씨코 마을의 남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2년 뒤에는 포도밭 50ha의 계획을 다시 정하고 포도를 새로 심었다. 2013년부터는 100% 유기농 포도만을 재배,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olaini Chianti Classico DOCG Vallenuova
Bronze Tolaini Al Passo Toscana IGT

Tenuta Buon Tempo 테누타 부온 템포

몬탈치노 최남단의 카스텔누오보 델라바테(Castelnuovo dell'Abate)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소유한 28ha의 땅은 올리브 나무와 숲, 오르시아(Orcia) 강에 이르기까지 몬탈치노의 경계와 이어져있으며, 이중 14ha의 밭에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테누타 부온 템포는 1990년대 초 질 좋은 포도가 날 수 있는 12ha 땅에 밭을 선정 후 일찍이 유기농법을 시행했다. 2018년에는 모든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수입사 와이벨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enuta Buon Tempo Brunello di Montalcino
Silver Tenuta Buon Tempo Rosso di Montalcino DOC

Vallepiciola 발레피치올라

끼안띠 클라씨코의 심장부인 발레피치올라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시에나의 카스텔누오보 베라 덴가의 동쪽 언덕을 따라 뻗어 있는 이곳은 온화한 미세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축복 받은 땅이라 불린다. 발레피치올라는 65ha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40ha는 2019년에 새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들은 끼안띠 클라씨코 와인을 위한 산지오베제를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지만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그리고 보르도 레드 품종 등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allepiciola Chianti Classico

Avignonesi 아비노네지

아비노네지는 아비농 우수 때 복귀하는 교황청을 따라 이탈리아에 정착한 프랑스 가문이 만든 와이너리다. 와인의 품질은 인간이 지닌 꿈과 희망, 과거의 역사와 계속되는 헌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이들은 떼루아를 온전하게 표현하고자 토양의 상태를 자연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하며,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을 사용해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지향한다. 수입사 레벡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Avignonesi Desiderio **Silver** Avignonesi 50&50

Badia di Morrone 바디아 디 모로나

바디아 디 모로나는 피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해변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총 500ha의 포도밭은 약 9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나머지 땅에는 올리브를 재배한다. 바다의 성분이 남아 있는 토양에는 모래가 주를 이루고 개성 있는 미네랄을 와인에 선사한다. 이들은 현재 토스카나의 토착 품종 이외에도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를 재배하여 슈퍼투스칸 와인 양조에 힘쓰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adia di Morrone Caligiano Chianti

Cecchi 체끼

체끼 가문은 1893년 루이지 체끼가 와인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토스카나 지역에서 대를 이어 와인을 빚고 있다. 이들은 끼안띠의 카스텔리나에서 와인 생산의 기반을 다졌고 그 후 산 지미냐노, 마렘마, 움브리아 지역의 몬테팔코 등에 포도밭을 사들이며 와인 생산을 확장해 갔다. 4대째 와인 양조 역사를 이어 온 체끼는 이탈리아의 국민 브랜드로 성장하며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ecchi Chianti Governo **Silver** Cecchi Chianti

Fattoria dei Barbi 파토리아 데이 바르비

14세기부터 몬탈치노 지역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던 콜롬비니 가문은 1790년에 이르러 '바르비'라는 이름을 붙인 와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진흙과 석회질 토양으로 구성된 이들의 포도밭은 별이 잘 드는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충분한 강수량, 온화한 겨울 기후의 혜택으로 건강하게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다. 파토리아 데이 바르비는 오랜 역사를 대변하는 만큼 뛰어난 품질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Fattoria dei Barbi Brunello di Montalcino DOCG Blue Label

Poliziano 폴리자이노

폴리자이노는 1961년 몬테풀치아노에서 22ha의 규모로 시작한 가족경영 와이너리다. 설립 초기에는 지역의 전통적인 와인을 생산하는데 주력했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모던한 스타일의 와인까지 양조의 폭을 넓혔다. 현재 163ha의 포도밭에서 유기농 재배를 고수하며, 손 수확한 포도는 광섬유 카메라를 통해 다시 한 번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각 포도나무의 캐릭터를 최대한 담아낸 와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Poliziano Rosso di Montepulciano DOC



MARCHE 마르케

이탈리아 중부 지역으로 북에는 에밀리아 로마냐, 서로는 움브리아, 남으로는 아브루쑈 지역과 접하고 있다. 동쪽에는 아드리아 해가 펼쳐진다. 해안선은 173km에 달한다. 마르케 지방은 바다에서 오는 미풍과 내륙의 산맥들로 인해 포도가 자라는 데 이상적인 환경이다. 와인 생산량은 연 1,039,000hl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가운데 화이트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이름난 화이트 와인에는 마르케의 주도 앙코나(Ancona) 지역의 예시 마을에서 생산되는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있다. 베르데기오로 빛는다. 달리 베르데기오의 명산지로는 앙코나와 마체라타(Macerata) 두 지역에 걸쳐 있는 마텔리카(Matelica)가 있다. 한편 레드 와인 산지로는 코네로(Conero)와 피체노(Piceno)가 있다. 코네로는 코네로 산 발치에 발달한 아주 자그마한 산지인데, 이곳에서 몬테풀치아노와 산지오베제로 빛은 DOCG 레드 와인이 난다.



▶ Velenosi 벨레노지

1984년 안젤라 피오디 벨레노지가 마르케에 있는 5ha의 땅을 기반으로 설립한 곳이다. 현재는 포도밭 규모가 150ha로 확장됐다. 이 포도밭은 마르케의 중심 지역인 코네로와 앙코나 등지에 퍼져 있다. 이곳에서 벨레노지는 로쏘 코네로, 팔리오, 로쏘 피체노 슈퍼리오레, 베르데기오, 삐꼬리노, 파쉴리나 품종들을 재배한다. 벨레노지는 그간 KWOC에 출품해 꾸준히 좋은 평을 얻었는데, 올해는 트로피 화이트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입사 더벡셀렉션

- 수상 와인리스트**
- Trophy White** Velenosi Reve Offida DOCG Pecorino
- Gold** Velenosi Querciantica Verdicchio Dei Castelli Di Jesi DOC Classico
- Silver** Velenosi 'Verso Sera' Colline Teramane Montepulciano d'Abruzzo DOCG
- Bronze** Velenosi 'Roggio Del Filare' Rosso Piceno DOC Superiore

▶ Umani Ronchi 우마니 론끼

1955년 마르케 지방의 작은 농장에서 출발한 우마니 론끼는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와인생산자 연합인 그란디 마르케(Grandi Marche)의 회원이기도 하다. 근래에는 아브루쑈 지역까지 포도밭을 확장했는데, 마르케에서 아브루쑈까지 210ha의 포도밭을 경작한다. 또 70년대 이래 오래된 포도나무 85%는 재식 재하면서 베르데기오와 로쏘 코네로 품종(몬테풀치아노, 산지오베제)에 투자하고, 삐꼬리노나 라크리마 디 모로 달바 같은 품종은 되살렸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Umani Ronchi Cumaro
- Silver** Umani Ronchi Casal di Serra

▶ Casalfarneto 카잘파르네토

카잘파르네토는 마르케의 앙코나 지역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이곳은 베르데기오 품종을 대표하는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 와인이 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약 14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부 유기농으로 관리한다. 토니(Togni)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카잘파르네토는 파올로 토니(Paolo Togni)가 대표로 와이너리 경영을 맡고 있다. 현재 다양한 와인 컴퍼티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해외 와인 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 수입사 LB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Casalfarneto 8 Borghi Vino Rosso
- Gold** Casalfarneto Cimaio Marche IGT Bianco

▶ Moncaro 몬카로

몬카로는 마르케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와이너리 중 하나다. 이들은 유기농 농법에 관한 국제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인 1980년부터 유기농 와인 생산을 시작했다. 포도 재배부터 병입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몬카로는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와인에 걸쳐 다양한 브랜드의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외의 각종 유명 대회에서 수상하며 와인 품질을 인정받았고, 현재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르 셸리에 Ltd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Moncaro Marche IGT Rosso Organic
- Silver** Moncaro Marche IGT Rosato Organic
- Silver** Moncaro Marche IGT Sangiovese Organic
- Silver** Moncaro 'Nerone' Conero DOCG Riserva
- Bronze** Moncaro Trebbiano d'Abruzzo DOC Organic



SARDEGNA 사르데냐

지중해 상의 여러 섬 가운데 사르데냐는 시칠리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시칠리아 보다는 좀 더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섬의 약 70%는 언덕으로 덮여있다. 기후는 대체로 해양성 기후를 보이지만 내륙의 고원지대와 산악지대에서는 대륙성 기후를 띤다. 연 강우량이 매우 적어서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다. 포도 경작 면적은 26,244ha, 총 와인생산량은 638,000hl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통치가 길어 이 섬에는 스페인 원산지의 포도종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칸노나우(Cannonau), 바로 스페인의 가르나차 품종이다. 그 외 레드에는 네비올로, 까리냐노(Carignano), 지로(Giro) 등이 많이 재배되며, 화이트에는 베르멘티노를 위시해 누라구스(Nuragus), 모스카토, 베르나차 디 오리스타노(Vernaccia di Oristano) 등이 있다. 사르데냐는 1개의 DOCG와 17개의 DOC가 있다. DOCG는 베르멘티노 디 갈루라(Vermentino di Gallura)로, 사르데냐 북쪽에 위치한 갈루라 지역에서 베르멘티노 품종으로 빛은 화이트 와인이다.

▶ Argiolas 아르지올라스

아르지올라스는 사르데냐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설립자 안토니오 아르지올라스(Antonio Argiolas)의 아들인 프랑코(Franco)와 주세페(Giuseppe) 그리고 조카 발렌티나(Valentina), 프란체스카(Francesca)가 함께 와인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사르데냐 섬의 토착 품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아르지올라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양조된 까논나우, 까리냐노, 베르멘티노는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Argiolas Perdera

UMBRIA 움브리아

이탈리아 반도 내륙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지방이다. 자연환경은 아펜니노 산맥이 만든 산악지대와 구릉지대 그리고 테베레 강 계곡이 조성한 비옥한 평원으로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이름난 거대한 트라지메노 호수가 이곳에 있으며 네레 강도 흐르고 있다. 이 지방의 와인 산지를 3곳으로 요약하면 이리하다. 첫 번째가 움브리아의 서쪽에 자리한 오르비에토(Orvieto) DOC다. 트레비아노로 빛은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하며, 여기에는 베르델로(Verdello)와 그라케토(Grachetto) 등이 블렌딩되기도 한다.

다음은 몬테팔코(Montefalco)와 그 인근 지역으로, 사그란티노 품종으로 빛은 DOCG 와인이 유명하다. 세 번째는 토르지아노(Torgiano)와 그 일대를 가리킨다. 레드 와인의 명소로 주로 산지오베제 품종이 사용되며, 까나이올로, 몬테풀치아노 등이 블렌딩 파트너로 쓰인다. 이곳의 토르지아노 로쏘 리제르바(Torgiano Rosso Riserva)는 사그란티노 디 몬테팔코와 더불어 움브리아에 단 두 개뿐인 DOCG 와인이다.

▶ Tenuta Alzatura 테누타 알자투라

토스카나 지역에 탄탄히 자리를 잡은 체기 가문은 90년대 말 움브리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와인 사그란티노 디 몬테팔코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투자했다. 그리하여 체기 가문이 움브리아에 설립한 와이너리가 테누타 알자투라다. 이들은 움브리아의 세 개의 지역 즉, 몬테로네(Monterone), 산 마르코(San Marco) 그리고 알자투라(Alzatura)에 포도밭을 경작하며, 몬테팔코 사그란티노와 몬테팔코 로쏘를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enuta Alzatura Montefalco Rosso





ABRUZZO 아브루초

이탈리아 반도의 허리춤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쪽의 아드리아 해와 맞닿아 있다. 아펜니노 산맥이 남으로 내려가는 한 가운데가 아브루초 지방이다. 그래서 서쪽은 산악이 발달해있다. 아펜니노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그란 사쏘도 이곳에 있다. 아브루초의 지형은 크게 산악지대와 해안의 평야지대로 나뉘는데, 이 지방의 와인인은 주로 바닷가 인근의 평원에서 난다. 테라모, 페스카라, 끼에티 이 3개의 지역이 아브루초의 대표적 와인 산지다.

북쪽의 테라모 지역에는 콜리네 테라마네(Colline Teramane) DOCG가 있어 최상급 와인을 내는데, 몬테풀치아노를 최소 90% 사용해야 하며 산지오베제를 10%까지 블렌딩할 수 있다. 콘트로퀘라 DOC는 트레비아노 토스카노 60~70%에 파쉴리나 15% 이상, 그 외 다른 품종을 소량 블렌딩해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다. 페스카라 지역은 테라모와 남쪽의 끼에티 중간에 자리한 곳으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 모두 생산한다. 끼에티는 이 지방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내는 곳이다. 아브루초 지방의 DOC 와인으로는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와 트레비아노 다브루초가 이름나 있다. 이 카테고리 와인인은 아브루초 전 지방에서 난다.

▶ Tenuta Ulisse 테누타 울리세

2006년 아브루초 지방에 설립된 와이너리로, 안토니오 울리세와 루이지 울리세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일찍이 아브루초의 토양과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 삐꼬리노, 트레비아노 다브루초 등 이 지역 토착 품종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현재 연간 백만 병 이상의 와인을 생산하며 생산량의 50%는 이탈리아 주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판매한다. 이들의 대표 와인 아마란타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는 루카 마로니에서 3년 연속 99점을 받았다. 수입사 문도비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enuta Ulisse Amaranta Montepulciano d'Abruzzo

Gold Tenuta Ulisse Merlot

Silver Tenuta Ulisse Nativae Montepulciano d'Abruzzo

▶ Cantine Mucci 칸띠네 무치

무치 가문은 1985년부터 아브루초에서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해왔다. 특히 루이지 무치(Luigi Mucci)는 자손들에게 와인에 대한 지식, 열정, 토양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그의 후손들인 아우렐리아(Aurelia)와 발렌티노(Valentino)는 이러한 가르침을 기본으로,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와인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들의 몬테풀치아노, 삐꼬리노, 트레비아노 다브루초 등은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antine Mucci Cantico Montepulciano d'Abruzzo DOC

▶ Fantini Group 판티니 그룹

판티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인 그룹이다. 1582년부터 아브루초의 오르토나(Ortona)에서 와인을 생산한 까밀로 데 아우리스(Camillo de Iulis)가 와이너리의 규모를 키웠고, 1994년 남부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그룹으로 거듭났다. 이후 발렌티노 쇼티가 경영을 맡으며 캄파니아, 바실리카타, 시칠리아를 거쳐 토스카나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다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며 국제 와인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수입사 와이빌

수상 와인리스트

Best Italy Red Tenute Rossetti Tino Rosso Toscana

Gold Fantini Edizione Vino Bianco

Gold Fantini Pinot Grigio

Gold Vigneti del Vulture Pipoli Rosato Basilicata

Silver Fantini Calalenta Merlot

Silver Fantini Casale Vecchio Montepulciano d'Abruzzo

Silver Fantini Collection Bianco

Silver Fantini Edizione Limited Release Collection 18

Silver Fantini Montepulciano d'Abruzzo Colline Teramane

Silver Tenute Rossetti Chianti DOCG

Silver Tenute Rossetti Governo Rosso Toscana

Silver Vesevo Greco di Tufo

Silver Vigneti del Salento Zolla Primitivo di Manduria

Silver Vigneti del Vulture Piano del Cerro

Bronze Fantini Don Camillo Sangiovese Cabernet Sauvignon

Bronze Vesevo Beneventano Falanghina

Bronze Vesevo Ensis Taurasi

Bronze Vigneti del Salento Zolla Primitivo Merlot

Bronze Vigneti Zabù Nero d'Avola

PUGLIA 풀리아

이탈리아 반도의 최동단, 장화의 발뒤꿈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풀리아는 동북쪽의 아드리아 해, 동남향에 이오니아 해, 그리고 남쪽에 타란토 만을 안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산악지대가 거의 없다. 대신 드넓은 고원지대와 평원이 펼쳐져 있다. 풀리아 지방의 포도 경작 면적은 86,711ha로 20개 산지 중 시칠리아 다음으로 넓다. 와인 생산량은 4,965,000hl에 달한다.

풀리아에는 4개의 DOCG와 28개의 DOC가 있지만, 전체 생산량 중 두 카테고리만 차지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 풀리아의 와인 산지는 중부의 까스텔 델 몬테(Castel del Monte), 북부의 루체라(Lucera), 동쪽 해안의 살렌토(Salento) 반도로 요약할 수 있다. 4개의 DOC는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돌체 나투랄레(Primitivo di Manduria Dolce Naturale), 까스텔 델 몬테 봄비노 네로(Castel del Monte Bombino Nero), 까스텔 델 몬테 네로 디 트로이아 리제르바(Castel del Monte Nero di Troia Riserva), 까스텔 델 몬테 리제르바가 있다.

▶ Cantine San Marzano 칸띠네 산 마르자노

1962년 산 마르자노에서 몇 세대에 걸쳐 농사를 지었던 19명의 포도 재배자들이 함께 칸띠네 산 마르자노를 설립했다.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은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DOC의 중심부였다. 현대적인 와인 생산 설비들을 갖추며 빠르게 성장한 이들은 오늘날 1,200명이 넘는 포도 재배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1,000ha에서 연간 90만병의 와인을 생산하며 일본,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antine San Marzano Sessantanni Primitivo di Manduria DOP

Gold Cantine San Marzano Talò Primitivo di Manduria DOP

Silver Cantine San Marzano Collezione Cinquanta Vino Rosso d'Italia +4

Silver Cantine San Marzano F Negroamaro Salento IGP

Bronze Cantine San Marzano Edda Bianco Salento IGP



CAMPANIA 캄파니아

캄파니아는 와인 이전에 관광지로도 이름이 높다.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발달한 나폴리와 소렌토, 2000년 전 화산 폭발로 잃어버린 도시 폼페이와 베수비우스 화산이 이곳에 있다. 이곳의 자연은 화산 작용으로 수많은 고원과 산악 그리고 평야가 형성되었고, 지중해성 온난한 기후로 푸른 숲으로 덮여 있다.

포도 경작 면적은 24,190ha, 총 와인 생산량은 1,664,000hl 정도다. 역사적으로 고대인들은 캄파니아 지방의 화산토가 포도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알리아니꼬, 팔랑기나, 그레꼬 등의 포도종을 이 지방에 전파했다. 오늘날 캄파니아에는 이탈리아 최상급 품계인 DOCG 와인이 네 개가 있다. 타부르노의 알리아니꼬(Aglianico del Taburno), 아벨리노의 피아노(Fiano di Avellino), 투포의 그레꼬(Greco di Tufo) 그리고 따우라지(Taurasi)의 와인이다. 따우라지는 주로 알리아니꼬로 빛는 레드 와인을 이룬다.

▶ Feudi di san gregorio 페우디 디 산 그레고리오

1986년 이르피니아(Irpinia)의 두 가문이 함께 설립한 와이너리로, 남부 아벨리노(Avellino) 주 소르보 세르피코(Sorbo Serpico) 마을에 위치해 있다. 페우디의 포도밭은 산과 언덕, 강과 평야가 모두 어우러진 이르피니아 땅에서 350~700m 정도의 고도에 자리한다. 유서 깊은 이르피니아 지역 떼루아에서 알리아니꼬, 피아노 디 아벨리노 등 다양한 토착 품종을 재배하며 이탈리아 남부 토착 품종의 가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수입사 무학주류상사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Feudi Basilisco Teodosio